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H  
Y  
M  
N  
  
T  
O  
  
F  
R  
E  
E  
D  
O  
M

자유를  
향한  
찬가

KBS교향악단 제784회 정기연주회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피아노 | 릴리아 질버스타인 Lilya Zilberstein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한국거래소  더클래스효성

2022.11.24.(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교향악단 제784회 정기연주회**  
**자유를 향한 찬가 Hymn to Freedom**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피아노 | 릴리아 질버스타인 Lilya Zilberstein

2022.11.24.(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ROGRAM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26** 🕒 27'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3 in C Major, Op.26**

1악장 느리게 - 빠르게 (9')  
 Andante - Allegro

2악장 조금 느리게 (9')  
 Andantino

3악장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9')  
 Allegro ma non tropp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5번 B 장조, 작품100** 🕒 46'  
**S. Prokofiev | Symphony No.5 in B Major, Op.100**

1악장 느리게 (14')  
 Andante

2악장 악센트를 사용해 빠르게 (9')  
 Allegro marcato

3악장 침착하고 느리게 (13')  
 Adagio

4악장 빠르고 익살스럽게 (10')  
 Allegro giocoso



PIETARI INKINEN,  
CONDUCTOR

©Andreas Zihler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 - <그라모폰> 지**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6월까지로 임기를 연장했다. 2016년부터는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겸임하고 있다.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와 2016년 그린룸 어워드에서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젤퍼오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의 지휘 아래 테너 사이먼 오닐과 함께한 바그너의 아리아들과 관현악곡 앨범, 요하네스 모저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브리튼의 첼로 교향곡 음반도 주목할 만하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발취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했다.



LILYA ZILBERSTEIN, PIANIST

©Andrej-Grilo

**피아노 | 릴리아 질버스타인**

**“흠잡을 데 없는 피아니스트, 단연 월드 클래스!” -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모스크바 태생으로 5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피아니스트 릴리아 질버스타인은 1987년 부조니 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모스크바 그네신 국립 음악대학 영재학교에서 12년간 아다 트라우브를 사사한 그는 이어 1988년 그네신 국립음대를 졸업할 때까지 알렉산더 사츠의 가르침을 받았다. 1985년 러시아 연방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1990년 독일로 이주했으며, 이듬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첫 협연 무대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했고, 존 액셀로드, 파보 베르글룬드, 세몬 비치코프, 구스타보 두다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알문 프란시스, 레오폴트 하거,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쟁쟁한 지휘자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데뷔 이래 총 17장의 음반을 발매한 그는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로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하여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여덟 장의 협연 음반을 발매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발매된 쇼팽 전집 앨범(DG),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한 브람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음반(EMI) 등 솔로 앨범 작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비롯한 주요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젊은 음악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부터 시에나 키자나 음악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해왔으며, 해외 투어에 나설 때마다 어김없이 세계 각지의 교육기관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함부르크 국립 음악대학의 초빙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빈 국립 음악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26**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3 in C Major, Op.26

작곡연도	1921년
초연	1921년 12월 16일, 미국 시카고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큰북, 심벌즈, 캐스터네츠, 탬버린, 현5부
연주시간	약 27분

서른 즈음의 젊은 프로코피예프는 체스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코스모폴리탄이었다. 그는 1923년부터 10년간 당시 전위적인 예술가들의 집결지였던 파리에서 활동했다. 러시아 발레에 열광하던 도시, 파리는 프로코피예프처럼 재능있는 러시아 작곡가들을 하나둘씩 끌어들이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파리에서 거주하기 이전부터 프랑스는 젊은 프로코피예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세기 후반, 철도 사업을 통해 유럽 각지가 연결되면서 프랑스 북서부의 브르타뉴 지역은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받았다. 프랑스 남부처럼 찬란한 햇살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파리에서 멀지 않았고, 모래사장과 바위 암벽, 강렬한 켈틱 문화와 중세 유적들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피카소, 샤갈, 마티스 같은 미술가들은 물론, 드뷔시도 이곳을 찾아 그의 교향시 '바다'의 영감을 얻었다.

1921년, 프로코피예프는 이곳 브르타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봄과 여름을 보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낸 아름다운 시간은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는 브르타뉴에서 러시아 출신의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하루는 프로코피예프가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러시아의 시인 콘스탄틴 발몬트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이 음악에 영감을 받아 한 편의 시를 썼다.

프로코피예프! 피어나는 음악과 젊음이며.

너의 영혼 속에서 오케스트라는 잊혀진 여름날의 소리,

태양의 탬버린에 맞춰 뛰는 무적의 스키타이인들의 심장 소리를 갈망하는구나.

이 시를 인연으로, 프로코피예프는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발몬트에게 헌정했다. 아마도 그는 이 곡이 20세기에 태어난 수많은 협주곡 가운데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 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 1악장 Andante - Allegro

마치 옛 노래를 연상하게 하는 클라리넷 솔로가 고요하게 협주곡의 문을 연다. 이 주제는 곧 클라리넷의 이중주가 되고, 현악기와 플루트가 가세하면서 서정성을 더하려는 찰나에 음악은 갑작스럽게 전환점을 맞는다. 약동하는 현악기의 움직임에 타고 해상처럼 등장한 솔로 피아노는 음악의 전면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제2주제의 도입을 위해 음악은 잠시 페이스를 조절하고, 목관이 연주하는 민요조의 새로운 주제에 피아노가 비르투오스적인 장식을 더한다. 후반부에서 캐스터네츠가 더해지면서 음악은 광란의 리듬적 향연을 들려준다.

### 2악장 Andantino

1920년대에 유럽 작곡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새로운 흐름 중 하나는 ‘18세기의 음악언어’에 대한 관심이었다. 프로코피예프가 2악장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18세기 가보트풍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감상적인 노래였다. 이 주제는 이후 이어지는 다섯 개의 변주 속에서 점차 현대적인 선율로 태어났다가 마지막 변주에서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 3악장 Allegro ma non troppo

프로코피예프는 이 악장에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라고 지시했지만, 악장 내내 마치 100미터 육상 경기 선수처럼 질주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지시어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음표들로 점철된 3악장은 온건한 템포에도 불구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두 대의 바순이 주제를 제시하며 저음부 현악기의 피치카토와 묘한 대화를 나누고, 주제의 윤곽은 묘한 방법으로 1악장의 분위기를 되살린다. 그 사이 피아노는 로켓처럼 질주하는 듯한 스케일 패시지를 연주한다. 악장 내내 질주하는 음악이 막바지에 이르면 금속성으로 빛나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배경으로 피아노가 육중한 화음을 연타한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오늘 공연에 대한 협연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협연자 릴리아 질버스타인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5번 B♭장조, 작품100

S. Prokofiev | Symphony No.5 in B♭ Major, Op.100

작곡연도	1944년
초연	1945년 1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
편성	플루트2, 피콜로,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 E♭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큰북, 탐탐, 심벌즈, 작은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우드블록, 피아노,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46분

20세기 중반, 서유럽의 작곡가들이 모두 '새로움'과 '독창성'이라는 미학적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소련에서는 사뭇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련의 자랑이었던 두 명의 걸출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는 모두 전통적인 콘서트홀 음악 장르에 집중하는 보수적 경향을 보인 것이다. 프로코피예프는 과거 음악 유산의 대표 격인 '교향곡' 장르에 총 7개의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교향곡 제5번은 콘서트홀 음악의 '정전(正殿)'으로 자리 잡은 작품이다.

프로코피예프는 1930년에 발표한 교향곡 제4번으로 쓰디쓴 실패를 맛봐야 했다. 그리고 이후 15년간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다시금 교향곡이라는 거대한 산에 도전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전쟁' 때문이었다.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에 몰려있던 1944년, 프로코피예프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소련 예술인들의 휴양지, 이바노보의 별장에서 한 달을 머물렀다. 이 기간동안 그는 15년 만에 새로운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의 다른 작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에 작품으로 구상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던 재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교향곡에 사용했다. 1930년대에 그가 구상했던 악상들, 특히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사용되지 못했던 음악적 재료들이 교향곡 제5번에 속속들이 들어갔다.

삶과 죽음이 속절없이 교차하던 전쟁의 시대에 탄생한 이 작품에 인간의 삶과 연관된 아우라가 덧입혀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곡이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1945년 1월 13일, 모스크바는 소련의 붉은 군대가 나치 독일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들떠 있었다. 당시 소련 인민들은 2차대전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승전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거리에는 소련군의 포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초연 당일, 모스크바 음악원의 대극장은 프로코피예프의 새로운 교향곡을 듣기 위한 소련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대극장 3열에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스바토슬라프 리흐테르가 앉아있었다. 그는 훗날 이 역사적인 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음악원 대극장은 언제나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코피예프가 포디엄에 섰을 때, 어디서부터인가 시작되는 빛이 그를 비추는 것만 같았다. 그가 지휘봉을 올리던 찰나, 포병 부대가 갑작스럽게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 그는 지휘봉을 멈추고 기다렸고, 대포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음악이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 상징적인 것이 있었다. 프로코피예프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치 전환점에 다다른 것 같았다.”



교향곡 제5번의 초연은 큰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6년, 소련 당국은 프로코피예프에게 ‘스탈린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 상이 프로코피예프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당국이 이 곡에 정치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기념한 작품이라고 선전했기 때문이었다. 초연 3주 뒤 프로코피예프는 가벼운 심장발작을 겪었다. 같은 해 이 작품은 쿠세비츠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미국에서 초연되었다. 프로코피예프의 사진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미국 청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지휘자 쿠세비츠키는 “브람스, 차이콥스키 이래 최고의 작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영광도 잠시였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 기류와 함께 불어닥친 미국 내 매카시즘 광풍은 소련 정부가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이 작품을 공산주의의 잔재로 만들었다. 소련 내의 상황도 이상하게 흘러갔다. 1948년 소련의 문화계 숙청을 주도했던 즈다노프는 프로코피예프가 ‘서구에 물든 형식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그것은 소련 치하의 예술가에게 사망선고와 다름없었다. 1953년 프로코피예프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같은 날 사망할 때까지, 그는 조용히 한 시대의 비이성적 광기가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 1악장 Andante

이 작품은 교향곡의 오랜 전통을 따라 네 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특이하게도 1악장은 느린 템포의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장대한 구성과 스펙타클한 소리가 1악장을 대변해주는 키워드다. 영웅적 성격의 첫 주제는 1악장의 강력한 서사의 힘을 나타낸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선율이 플루트와 바순에 의해 연주되는데, 그 독특한 음색만으로도 프로코피예프적인 소리로 시작함을 보여준다. 플루트와 오보에가 연주하는 두 번째 주제는 불안한 움직임의 현악기 배경과 독특한 대조를 이룬다.

### 2악장 Allegro marcato

실 새 없이 움직이는 리듬적인 추진력을 배경으로 클라리넷이 냉소적인 주제를 연주한다. 중간부에서 클라리넷과 비올라가 장조의 가벼운 선율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음악은 갑자기 춤곡풍의 흥겨운 리듬을 타고 흐른다. 이후 첫 주제가 다시 재현되는데, 금관악기가 악마적인 힘을 내뿜으며 주제의 원래 형태를 심하게 뒤튼다.

### 3악장 Adagio

2악장과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중간부를 포함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독특한 리듬을 배경 삼아 흐르는 몽환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클라리넷의 선율이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중간부의 솔로 악기로는 이례적으로 튜바가 흐느끼는 듯한 선율을 연주한다. 현악기의 아르페지오를 타고 등장한 피콜로가 고음역의 선율을 들려주는 마지막 코다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프로코피예프의 거장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4악장 Allegro giocoso

1악장의 주제를 회상하는 짧은 도입부로 시작된다.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묵직한 앙상블이 이전의 음악적 재료들을 회상하면, 곧이어 이에 응답하는 클라리넷이 4악장의 새로운 주제를 제시한다. 이 주제는 곧 다른 악기들로 옮겨 연주되고, 론도 형식으로 반복되면서 들뜬 듯 낙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악장의 막바지에 이르면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 폭발적인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승리감에 넘치는 듯했던 코다는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선율을 제시하며 작품 전체의 여정에 독특한 여운을 남긴다.

## 제783회 정기연주회 ‘쿨레르보’ Review

### 피에타리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의 과감한 도전

시벨리우스가 <쿨레르보>를 작곡한 것은 핀란드가 러시아의 압제 아래 있던 1891년의 일이다. 조국 핀란드의 자랑스러운 민족 전승을 토대로 작곡된 <쿨레르보>는 핀란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듬해 1917년 핀란드는 독립했다. 시벨리우스가 핀란드의 국민적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러한 역사 때문이다.

<쿨레르보>에 대한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의 해석은 대서사시에 걸맞은 스케일을 보여줬다. 그는 초반부터 격정의 파노라마를 그려냈다. 특히 목관악기가 연주하는 영웅적인 주제는 서사시의 주인공이 맞을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듯 진취적인 가운데서도 음울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걱정적인 해석을 펼쳤다고 해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연주가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예컨대 텍스트의 정서를 걱정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템포나 다이내믹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기 마련이다. 또는 음가를 조절해 같은 박으로 이뤄진 선율을 마치 부점(附點)이 있는 듯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잉키넨은 화려한 해석을 지양한 채 소박한 표정으로 약간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곡의 긴장감을 유지했다.

소박함이 담긴 해석은 작품이 가진 본질에도 가까이 다가가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쿨레르보>는 <칼레발라>라는 핀란드 서사시집의 31~36장을 바탕으로 쓰였다. <칼레발라>는 선과 악, 영웅과 악당의 싸움을 그리면서도 대자연을 배경으로 농부, 포수, 대장장이, 음유시인 등 민중들의 소박한 모습이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서사가 힘을 갖기 위해선 발단-전개의 과정을 충실히 밟을 필요가 있다. 즉, 배경과 캐릭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페라의 서곡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반부터 몰아쳤던 잉키넨의 드라마가 설득력을 가진 것은 <쿨레르보>에

앞서 연주한 교향시 <전설>이 이미 서곡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호수처럼 차가운 음색의 현악을 바탕으로 안개처럼 희뿌연 호른의 울림이 본격적인 서사에 앞서 충분히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다. ‘전설’이라는 표제의 분위기 그대로 서서히 정서를 고양시킨 해석은 단일 연주로만 놓고 봤을 땐 이른바 ‘한 방’이 부족한 연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메인 프로그램인 <쿨레르보>와 짝지어 본다면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절묘한 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쿨레르보> 연주는 한국 초연이었다. 핀란드 출신의 젊고 재능있는 지휘자에 의해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뤄낸 연주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히 깊다. 솔리스트와 합창단과 모두 핀란드 출신으로 캐스팅한 이번 연주는 훗날 누군가 <쿨레르보>를 연주할 때 반드시 떠올릴만한 레퍼런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과 KBS교향악단은 과감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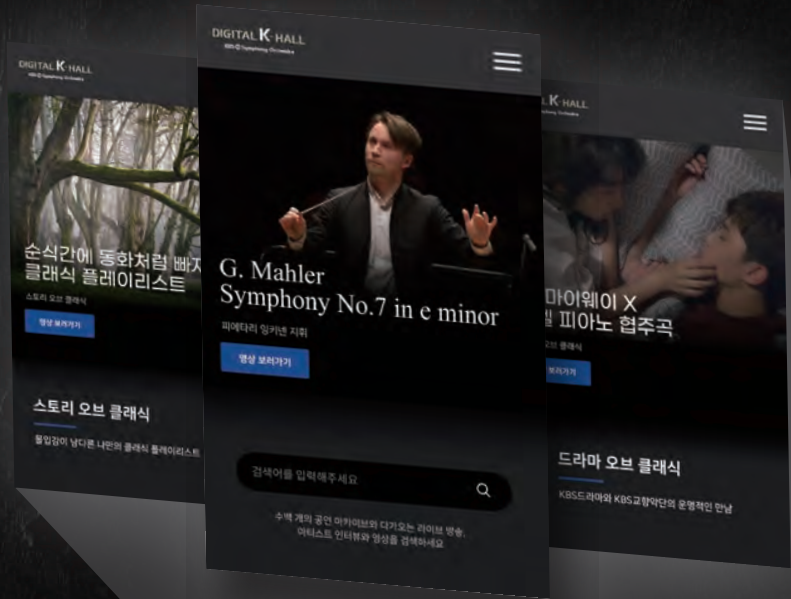
글 | 권고든 (음악평론가)

### CONCERT INFORMATION

KBS교향악단 제783회 정기연주회  
10월 28일(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9일(토) 17: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소프라노 | 요한나 루사넨-카르타노  
바리톤 | 톰미 하칼라  
합창단 | YL남성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Program  
시벨리우스 | 전설, Op.9  
시벨리우스 | 쿨레르보, Op.7



# 언제 어디서나 클래식하게

## KBS교향악단 '디지털 K-Hall' 오픈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온라인 콘서트홀  
곡목·연주자·작곡가별 검색기능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감상 가능

### 콘서트

KBS교향악단의 다채로운 공연 실황 영상

### 플레이리스트

상황별 맞춤 음악을 제공하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 클래식 스토리

연주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공연 해설 영상

### KBSSO 스토리

KBS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못다한 공연 뒷이야기

디지털 K-Hall  
바로가기



##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 최종 합격자 인터뷰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실시된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 결선 오디션에서 2명의 지휘 꿈나무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박수현(목동중 2학년), 이찬(대전예고 2학년) 두 명의 청소년이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의 체계적인 지휘 교육을 통해 차세대 지휘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긴 오디션 끝에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박수현** 지휘자이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지휘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찬**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공연장을 찾으며 클래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러다 첼로의 매력에 빠져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다룰 수 있는 악기는?

**박수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찬** 첼로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 지휘를 배우거나 해본 경험은?

**박수현** 지휘를 배운 지는 3개월 정도 됐어요. 마스터클래스 결선 오디션에서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봤습니다.

**이 찬** 저도 지휘자를 꿈꿔왔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결선 오디션 전까지 지휘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 오디션을 준비하며 어려웠거나 좋았던 점은?

**박수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연주자들이 앞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습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지휘 실력과 음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 지휘를 정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지휘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지휘자로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이번 마스터클래스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오디션 후 지휘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음악감독님의 피드백을 받은 소감은?

**박수현** 제 지휘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지휘 연습에 효과적인 조언을 주셔서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찬** 여러악기로 구성된 앙상블을 지휘하는 제 모습이 색다르고 어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악감독님의 피드백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수현



이찬

**결선 무대 후 오디션 합격을 예상했는지?**

**박수현** 준비했던 것보다 실수가 많았고, 음악감독님께 지적도 많이 받아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찬** KBS교향악단 수석분들로 구성된 앙상블을 지휘해본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우 떨렸습니다.

**결선 오디션장에서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을 처음 만난 소감은?**

**박수현** 본인 음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에게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느꼈어요.

**이 찬**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 보다가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멋있으셨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지휘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박수현** 말러의 <교향곡 제1번>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와 함께 꼭 지휘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KBS교향악단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비창'>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을 지휘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는지?**

**박수현** 단원들을 이끌며 끝없는 해석을 표현하고 전달하여 청중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찬** 잉키넨 음악감독님처럼 오케스트라와 하나 되어 단원들과 소통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점은?**

**박수현** 잉키넨 음악감독님께 직접 지휘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제가 연주자들 앞에 서서 지휘하는 모든 활동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이 찬** 잉키넨 음악감독님을 비롯해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리허설과 연주를 참관하고, 지난 오디션처럼 앙상블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됩니다.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약장 \* 부약장 \*\*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제2바이올린**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수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권민지+ 임정연\*\*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안지현 박서현 최여은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김희연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오\*\*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종진\*\*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오+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장세나 오지에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단원**

**악장**

David Coucheron\* (애들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제1바이올린**

남지원 신예은 김영중

**제2바이올린**

강나영 이경미

**비올라**

맹진영

**첼로**

박장근

**더블베이스**

홍성수 허경호

**플룻**

한지은+

**호른**

권미정 김현준

**피아노**

국영하

**타악기**

손혁진 허수정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미래사업추진단 단장 손대승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조병근 대리 이미라 주임 최혜정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 KBS교향악단 후원회 소개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 다채로운 행사 참여의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이하 등급 전체 혜택 포함)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숙박 제공)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전용 혜택)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연 1회 2인 교통, 숙박 제공)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 교향악단 투어 (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에듀드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에듀드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관련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후원회원 온라인 가입





#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백정호 (주)동성케미컬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영희 KBS 시청자센터장 조현아 KBS 예능센터장 최봉현 KBS 라디오센터장		

#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영호 일산방직(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주)동성케미컬 회장 / KBS교향악단 이사장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구자용 (주)E1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대표이사 허승현 PHA 사장
Nocturne	김동진 금양식품(주)대표 (주)하어스엠
Prelude	김도영 변호사 김승종 전)KBS감사 김용 김진오 변호사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앰파트너즈 대표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ONE OF





실크침대

# A KIND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http://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